**교수님: 조덕호**

**석사: 수흐바타르**

**한국고속도로**

 독일에서 처음 건설되었으며,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신호등이나 별도의 지시 장치 없이 자동차를 운전자의 습관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된다.

한국고속국도로는 1968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29.5km가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1970년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428km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일상적으로 생활권을 바뀌었다. 그 이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4,0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이며, 대구,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는 시내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가 있다는 말이다.

**고속도로 장점**

1. 법정 주행속도가 빨라 가장 빠르고 편안한 이동

2. 곡선도로가 적고, 차로 폭이 널찍하며 도로 주변에 위협 요소가 거의 없어 고속

 주행에 안전

3. 노면 상태가 매우 우수해 안락한 이동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타이어)

4. 정체상태가 날씨 등 자세한 도로 정보 서비스, 통일된 규격의 대형 안내 표지판.

5. 편의시설이 좋은고속도로 휴게소 등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다.

**고속도로 단점**

1. 주변 경관을 구경하기 어렵고, 장시간 이동은 지루하다.

 (사실상 터널이라고 생각)

2. 연결 지점이 제한되어 있다.

 (어떤 지점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가 오히려 멀리 도라가는 경우도 많다)

3. 제법 부담이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편한다고 여기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생활 여행의 상황에 따라서, 고속도로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도를 적절히 섞어 이동계획을 짠다면 무척이나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경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만큼 각각의 이용 비율을 조절해 가며 유연하게 대처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